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말에 속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하늘과 땅을 초월한 사람은 어찌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곧 알려주게나.”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삼문(三門)과 불전(佛殿)이야.”

“본래 생이 아니며 현재 또한 멸함이 없다.”

問 如何是不生不滅
師云 本自不生今亦無滅

問 超越乾坤底人如何
師云 待有與麼人即報來

問 如何是伽藍
師云 三門佛殿

태어나고 죽으려면 그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자연의 원소가 모여서 뭉쳐진 것이다. 때가 되면 흩어진다. 자연의 원소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반복할 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태어나고 없어진다는 말인가?

자연을 두고 무엇을 '나'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없고 대자연만 있다. 그래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자연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지 끝이 아니다. 끝은 없다.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하니 '죽었다 살았다' 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본래 태어남도 없었고 죽음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사람 마음 국가 단체 가족 등이 다 원래 생긴 적이 없었고 멸할 것도 없다. 세상의 언어에 속지 말라. 언어는 표현이다. 사실이 아니다. 언어의 뜻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이 된다. 자유로워져라. 그대들이 알고 있는 언어의 뜻에서 벗어나라.

누가 죽었다고 해도 죽음으로 보지 말라. 태어났다 해도 태어난 것으로 보지 말라. 부귀함을 보아도 부귀함으로 보지 말고 가난을 보아도 가난함으로 보지 말라. 때사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무심으로 그냥 보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멸망으로 보지 말라. 본래 지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하늘도 벗어내고 땅도 벗어난 사람은 하늘의 재앙을 받지도 않고 땅의 재앙도 받지 않는다.

하늘의 재앙이란 무엇일까? 번개, 눈비, 바람, 기후 등 일 것이다. 땅의 재앙이란 무엇일까? 지진 홍수 불 질병 사고 등에서 생긴 재앙일 것이다. 이런 재앙은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늘도 벗어내고 땅도 벗어나 이런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불교는 형이상주의를 찾거나,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종교가 아니다. 또 다음 생을 기대하는 종교도 아니다. 현재 이 현실 위에서 편안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고, 공평한 인생,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불교는 매우 미래 지향적이고 진실하다. 따라서 불교를 신행하면 매우 합리적이며 급진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도 될 보수적이다.

전생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병을 고쳐주는 신통과 불교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은 방편으로 중생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해야 한다.

삼문은 일주문 해탈문 누각문(樓閣門)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원의 겹겹의 문을 그냥 3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불전은 부처님 전각을 말한다. 가람은 사찰, 사원을 가람이라고 한다.

가람은 삼문과 불전이다. 그 이상으로 해석하고 신비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가람에 들어가면 그냥 편안해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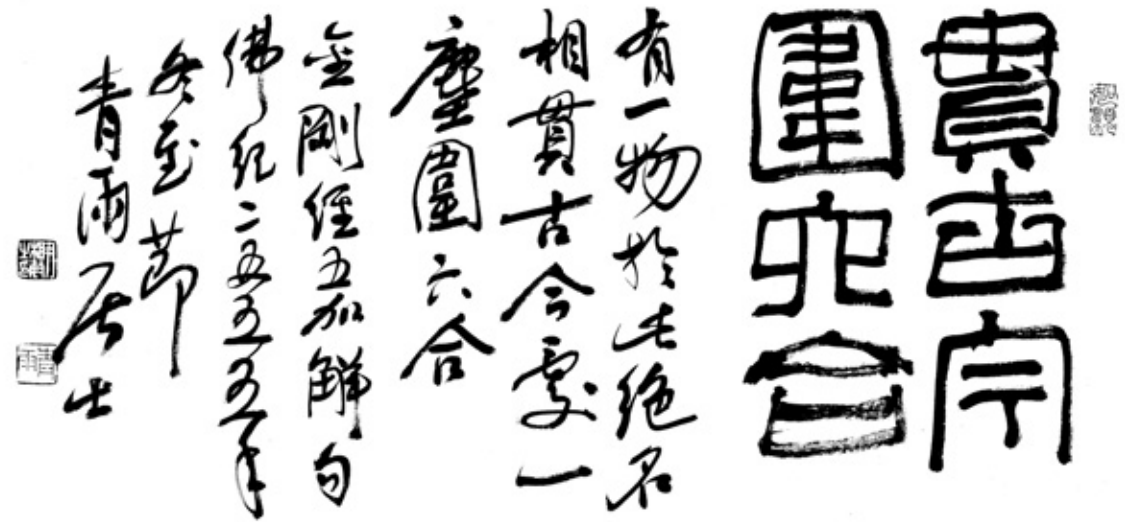
사원에 들어가면 그 자체를 즐겨라. 맑은 공기, 조용함, 굴러가는 낙엽, 글 읽는 스님, 풍광, 맑은 바위를 하는 막부들을 그냥 보면서 도량을 거닐어라. 심오함도 있는 채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보면 그대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가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더 이하고 없다. 가람은 그렇게 부처가 기거하는 곳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생불멸(不生不滅)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상민의 서화산책 금강경 오가해

고금을 꿰뚫다



有一物於此 絕名相貫古今 處一塵圓六合(유일물어차 절명상관고금 처일진원위육합)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이름과 형상이 없으나 고금을 꿰뚫고 있으며 하나의 먼지 속에 있으나 동서남북과 상하를 모두 에워싸고 있다. (금강경 오가해) 합허기화(1376~1433)

絶: 끊을 절
貫: 꿰 관, 당길 말
塵: 티끌 진
圓: 에워쌀 위, 나라 국
六合: 동서남북 상하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④

진리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 (테라가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땅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서있는 사람들이지만, 땅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선 사람들이다.

이 두 부류의, 서로 상반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 '거꾸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 부른다. 물구나머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물구나머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꾸로 서있는 사람'은 아니다. 땅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거꾸로 서있는 사람'임은 물론이다.

어떻든 서로 마찬가지로 그 입장이 다를 뿐이라는 상대주의(相對主義)나 어느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은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 서있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올바르게 서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꾸로 서 있는 사람들인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슴들이 뛰어놀던 동산에서 펼쳐진 최초의 법회에 동참했던 붓다의 다섯 제자들 중에 '법파'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 법파 비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원로 비구들의 시를 모은 <장로경(Theragatha)>에 보면, 그의 통찰력이 빛나는 시 한 수를 만나게 된다.

"진리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 또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 그러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또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박용길 옮김, <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민족사, 36 쪽)

진리를 보는 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것이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렇지 못한 우리 중생들이다. 법파 비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상반되는 세계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진리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는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이 진리를 안다"고 했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서 든 비유처럼 땅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서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곧 <반야심경>의 '전도몽상(顛倒夢想)'이 생각나지 않는가. <반야심경>에서 "전도된 몽상을 멀리할 수 있다면 곧 열반이라" 했으니, 법파비구의 시는 우리에게 불교가 지혜의 길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진리를 보는 자, 즉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 즉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밤'이다. 진리를 보는 자에게 '낮'이 된다면, 30년 전에 들은 성철 스님의 법문 한마디가 가끔 나를 위로해 준다. "불교는 세상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다."



법파 비구의 노래나 성철 스님의 법문은 공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택하라 강요한다. 진리를 보는 자들이 걷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화두(話頭) 해도 좋으리라.

문제는 진리를 보는 자들이 걷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길이 오히려 가시밭길이 아니라 탄탄대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진리를 보는 자들이 걷는 길은 왜 탄탄대로가 아닐까? 아쉬운 일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라. 이 세속에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온갖 욕망을 다 충족시키는 삶을 살면서 그 위에 진리까지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욕심인가! 그래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1) 초급반 : 사물(요령, 목탁,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식, 쇠송, 각단예불, 의식
-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육, 천도재(49재), 각종의식
- 3) 작법반 : 오희양작법, 다계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육바라, 사다라니바라
- 4) 고급반 : 운심계,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 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 편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